

FATHER OF DENTIST

비에르·포샤르 (1678~1761)

Pierre, Fauchard



齒科醫學이 진짜로 獨立한 學問으로서 專門化하기 시작한 時期는, 비에르·포샤르 (1678~1761年)의 活躍과 때를 같이 하고 있지만, 그 사람이야말로 齒牙에 全生涯를 건 最初의 사람이다. 포샤르는 몇 世紀에 걸쳐 蓄積되어 온 大量의 情報를 整理, 綜合해서, 窩洞 充填에 錫 및 鉛을 使用한다고 記述했는데, 더욱 重要的 것은 詳細한 秘法을 公表해서, 그 結果를 他人에게 評價시켜 利用할 수 있게 한다는 倫理的 原則을 確立한 것이었다. 또한 齒科醫師의 特別한 訓練과 志望者의 試驗을, 外科醫가 아니라 이 分野에 經驗 있는 者가 行할 必要가 있다고 強調했다. 그의 『齒科醫師』(1728年)는 몇 代에 걸쳐서 權威있는 教科書가 되어 그 後의 齒科醫學의 基礎가 되었다. 프랑스에서는 그 밖의 人們에 의한 著書가 잇따라서 出現했다. 예를 들어 도우버(포샤르와의 共著도 있다), 제롤디, 비앙, 무우톤(最初의 金冠, 기타 새로운 補綴物을 만들었다), 부르네(새로운 器具를 考案했다), 그 밖에 많이 있다. 웨부르 地方의 藥劑師 뒤샤토는, 鑄型을 써서 最初의 磁器製 義齒을 만들었다.

세창치과기공소

752-5970, 778-8687

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-18 (금정빌딩 302)

대표 권혁문